

“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

■ 이종윤 원로목사

성도가 어떻게 대담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토록 많은 위험과 위협을 겪으면서도 뜨거운 열정과 불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평온한 마음을 갖고 가장 행복하게 인생을 산 사도 바울을 탄복과 기이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바울은 우리를 근심케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현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는 시간의 그림자를 앞질러 가고 영원을 현실로 끌어들이면서 산 사람이다. 그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온 마음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을 강하고 굳세며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든 깊고 즐거운 평안을 체험하였다.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담대하게 사는 기술 즉 속사함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기술을 습득했으면 좋겠다.

한여름의 곤충처럼 짧은 인생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모든 것이 끝나 버린다. 우리는 오감에 의해서 인지되는 당연한 현세에만 너무 갇혀서 살고 있다. 우리의 영혼은 몸에 매여 있고 그날의 환경에 갇혀 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 매이는 데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의 총명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면 요단강 저편에 이르기 전에 이제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도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대적변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산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죽음을 땅에 있는 그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말한다. 멸망이나 멸절이라 하지 않고 즉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을 잃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장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자신이 잠시 거주하기 위해 그럭저럭 꾸려가던 장막을 접은 정도에 비유하고 있다. 그 이후의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기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죽음없이 변화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했지만 그 일은 기꺼이 주님 손에 맡기고 주안에서 죽는 복된 성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았다. 사도는 자신이 입고서 살고 있는 몸은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것으로 보았다. 장막 깎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던 바울은 무너지기 쉬운 장막을 인생의 몸으로 비유한 것이다.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와서 쳐도 무너지는 장막처럼 미세한 유독물질이나 하찮은 것이 사람의 생명을 끝낼 수 있다. 깨어질 질그릇 같은 우리가 계속 산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다.

이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죽음에 시달리지 않고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거추장스런 틀이 해체되면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알 속에 들어있는 병아리와 같이 껍질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죽음이 이 껍질을 깨트린다. 부화한 헛병아리가 껍질 깨진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을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집없이 떠돌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준비되어 지체함 없이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무너질 장막집이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대저택으로 발전한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살게 될 터이니 몸을 버리는 것이 분명히 유익하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중세기에 악인들이 죽음을 두려워 한 나머지 수도사의 옷을 구입하여 입고 죽었다는 우스꽝스런 이야기가 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우리 예수님이 마련하신 천국집으로 이민갈 터이니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담대하게 살자.

-한국장로신문 [제 1325호] 2012년 6월 23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enior Deaconess Seung Kyung Baeck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2:1-8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Congregation
Sermon	“Message of Wisdom” Rev. Euichang Kim
* Hymn	210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선 교 사 강아급주enna,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훈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찬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경(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애(타기노동자), 필리온,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르, 비사누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박명성,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p style="text-align: center;">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 style="text-align: center;">SEOUL PRESBYTERIAN CHURCH</p> <p style="text-align: center;">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 style="text-align: center;">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p>
--	---

“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

■ 시 134:1-4
 오늘 말씀은 한 신앙인의 위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시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과 인생의 위기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분명한 자의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신앙의 눈, 즉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조명을 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하고,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적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밤에 찬양했다고 합니다. 밤이란 암울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암울한 현실은 국가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시인은 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1. 암울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찬송해야 한다
 시인은 어두운 현실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 하지 않고 오히려 밤의 긴 역사를 신앙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국가적인 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삶을 비판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곧 욥과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욥으로 하여금 고통의 축복을 받게 했고, 바울과 실라의 감옥 문을 열었고,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게 했습니다. 찬송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2. 성전에서 찬양해야 한다
 찬송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요, 하나님이 항상 머무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찬송을 받아 주시고,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전에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의 밤, 즉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귀향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을 인생의 영광, 인생의 회복, 인생의 기쁨과 평화는 하나님의 전에서 회복되므로 성전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복을 주십니다.

3. 찬송은 구원 받은 자의 전유물이다
 찬송은 구원 받은 자들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오직 여호와의 종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만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찬송을 할 수 없습니다. 찬송은 종 됨을 고백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산물입니다.

4. 찬송을 드리는 자들의 자세
 찬송은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며 일어서서 하는 것입니다.(시 134:1) 일어선다는 것은 존경과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종 됨을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손을 들고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나의 실존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순복하며 바친다는 뜻이며 또한 자신을 부인하는 뜻입니다. 인생의 회복, 균형 잡힌 삶은 우리가 손을 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5.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본문을 보면 나라에 큰 환란이 닥치자, 위기에 봉착한 수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찬송을 계속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절망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올라 와서 탄식하는 것은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복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맺는 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 134:3)
 찬송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히브리어로 찬송한다는 말과 축복한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전재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차도훈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인 도 자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8: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7(사순절 4)...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6(14)...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요 9:1-1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믿으면 알게되는 경지”... 전재홍 목사
 * 찬 송 Hymn357(39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35:1-3 인 도 자
 찬 송 68(32) 다 함 께
 기 도 예완식 집사
 성 경 약 2:14-2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나라”... 설 교 자
 * 찬 송 178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김희순 권사
 성 경 막 4:1-2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안 박수강 김복희2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호주	박수강	윤주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있 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시 134:1)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수요 I 부					성구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 모임
 - 권사회 월례회 / 31일(주) 오후 3시30분 101호
 - 임마누엘 절기 찬양 연습 / 6일(토) 오후 5시 101호
-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사무국) : 4월 6일(토)
문답총정리는 4월 7일(주) 1시에 105호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4월 7일(주) 오후 2시에 105호에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에서 계속 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78명	227명	209명	1,314명	130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3/24)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3월 24일	헌 금	34,485,300	
	말씀봉사비		18,010,000
	급 여		31,303,355
	찬양대사례비		14,306,000
	교회학교사례비		10,270,000
	비전2020		30,000
	출 판 비		250,000
	지원교회		500,000
	인 건 비		6,122,600
	복리후생비		402,690
	통 신 비		187,020
	수도광열비		134,870
	차량유지비		1,386,480
	소모품비		92,550
	수선유지비		169,620
	잡 비		21,000
	식당운영비		1,033,970
	합 계	34,485,300	84,220,155